

# 전북문화관광재단, 신년인사회 개최

문화예술계 · 관광업계 상호 교류 · 화합 도모... 재단 사업 소개 · 축하공연 · 퍼포먼스 등 진행

전북문화관광재단은 27일 전주 라한호텔 온고을홀에서 2023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힘들었던 도내 문화예술인과 관광업계 종사자의 아픔을 달래고, 문화예술계 및 관광업계의 상호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과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 문승우, 이수진 의원, 천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시의회 김원주·최용철 의원, 소재호 전북예총회장, 조오의 전북관광협회 회장, 전라북도문화원연합회 나종우 회장 등 문화예술 및 관광계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해 가운데 국민의례, 내빈소개, 2023년 재단 사업 소개, 신년 축사 및 덕담 축하공연과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전북도는 '문화가 일상'이 되는 전북, 세계인이 머무르고 싶은 관광 전북'을 위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의 노력에 대해 감사하다"며,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27일 전주 라한호텔 온고을홀에서 2023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퍼포먼스 모습

이경운 대표이사는 "이번 신년인사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견뎌준 도내 문화예술인, 그리고 관광업계 종사자분들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신년인사회를 시작으로 예술인들과 더욱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관련 현안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역별 강점을 살린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에서 창업·성장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 대표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육성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도, 시군 담당 국장들은 지역별 핵심 국가예산 사업을 설명하고, 중앙부처 첫 대응 단계에서부터 도와 긴밀히 호흡을 맞추고, 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역할 분담, 유기적으로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군별 주요 국가예산 사업은 △전주고도 지정 및 역사골격 조성, △군산 내항 뽕다리부두 보수, △세계유산 백제왕궁 정원유적 조성, △정읍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국립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술박물관 디지털 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동서화합 육십령 가이아센터 조성 등이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발굴 사항 설명 등 당면 현안들이 있어 시군의 적극적인 협력도 당부했다.

천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오늘 이 자리가 국가예산 확보 대응 전략 마련 및 지역 맞춤형 콘텐츠 발굴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문화체육관광을 연계한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해 전북도가 새로운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의 거점이 되고,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열어가는데 도와 시군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자"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북형 K-문화콘텐츠 발굴 '협력'

도·시군, 문화체육관광 거점 조성 위한 콘텐츠 발굴방안 모색 · 공조 다짐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시대에 걸맞은 전북형 K-문화콘텐츠와 신규 국가사업 발굴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27일 도·시군 협력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K-문화거점 조성을 위한 콘텐츠 발굴 특강과 도, 시군별 국가예산 및 신규사업 설명, 협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논의, 기타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2023년 도정 운영방향인 '문화체육관광 거점

조성'을 실현하기 위해 진행된 특강은 문체부 산하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 김명하 책임연구원이 강사로 나섰다. 김명하 책임연구원은 국가정책을 면밀히 분석한 신규사업 발굴 방향에 대한 설명과 시군별 맞춤형 컨설팅까지 진행했다.

특히, 최근 강조되고 있는 문화콘텐츠 연구개발과 지역별 역사와 문화가 접목된 콘텐츠 발굴 방안 등에 대해 도와 시군이 상호 논의하는 시



## 전북대박물관 '목요시네마 뮤즈' 출발

3월 봉준호 감독 특집 등 12월까지 다채로운 영화 이야기 소통

전북대박물관(관장 김은희)은 3월 2일 캠퍼스 개강과 함께 '목요시네마 뮤즈'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목요시네마 뮤즈는 매월 주제별 영화를 통해 오는 12월까지 올 한해 지역민들과 만난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다양한 시각으로 영화를 접할 수 있도록 영화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곁들여지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3월 첫 시작은 K문화의 저력을 보여준 봉준호 감독 특집이 마련된다. 이어 4월에는 리더의 성장과 역량, 5월에는 힐링영화, 6월에는 철학적 영화, 7월은 독특하고 섬세한 감성의 북유럽 영화, 8월은 예술영화 추천, 9월은 역사 3부작, 10월은 다양성과 포용에 관한 이야기, 11월은 다채로운 한국 독립 영화, 12월은 Sing a Song 음악영화 등 다채로운 영화 이야기로 소통을 시도할 예정이다.



김은희 관장은 "목요시네마 뮤즈는 오랜 기간 영화를 통한 대화와 지역민의 소통의 장이 되고, 영화를 통해 인문학적 감성을 지역민과 나눠왔다"며 "생동하는 캠퍼스의 문화공간에서 다양한 문화 예술을 접하고, 지역민의 문화 향유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이어가며 세대를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문의는 전북대박물관 학예실(063-270-4088)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솜리골장애인사랑예술단, 솜리 봄맞이 음악회 가져

솜리골장애인사랑예술단(단장 명현)은 지난 26일 익산시 동산동 유천생태습지공원 특설무대에서 솜리 봄맞이 음악회를 가졌다.

이날 솜리 봄맞이 음악회는 솜리골장애인사랑예술단이 주최한 가운데 익산시가 적극 후원했다. 특히 솜리 봄맞이 음악회에서 홍보연예예술단 한동수 단장의 진행 아래 각각각색 문화공연이 펼쳐졌다.

명현 단장은 "뜻 깊은 행사에 장애인, 그리고 익산시민들을 모시고 함께 하고자 솜리 봄맞이 음악회를 열게 됐다"며 "이를 도와주시는 전북장애인정보문화협회 익산지회 정영문 지회장은 물론 홍보연예예술단 한동수 단장에 감사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솜리 봄맞이 음악회는 장애인 뿐 아니라 익산시민들이 주인



공 되는 문화공연"이라면서 "건전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솜리골장애인사랑예술단은 명현 단장을 중심으로 2023년 올해 솜리 봄맞이 음악회와 버스킹 공연 등 굵직한 문화공연도 계획 중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 순창 옥천골 · 섬진강 미술관, 3월 기획전시회 개최

순창 옥천골미술관과 섬진강미술관에서 3월 기획전시회가 열린다.

먼저, 순창군 순창읍에 위치한 옥천골미술관은 오는 3월 1일부터 '김주현 작가초대전'을 개최한다. 작가 김주현은 국회의장상, 통일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에서 주목받는 작가다. 이번 초대전에는 '사람이 그리워질 때 1호', '기분좋은날', '새로운도약' 등 수채화 작품 30점이 전시되며 꽃, 닭, 자연 풍경을 통해 그려낸 김주현 작가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간접 경험할 수 있다.

적성면에 위치한 섬진강미술관에서 기획전

'한국화-묵향전'이 오는 3월 1일부터 열린다. 순창군 섬진강 사생대회 등에서 성과를 내온 아카데미 작가들은 다양한 시선을 화선지로 순창의 아름다운 풍광을 그려냈다. 또한 이번 '묵향전'을 통해 지도 강사 김성욱, 자문 조기남 등 15인의 한국화 작품을 먹의 향기를 감상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옥천골 미술관(063-650-1638) · 섬진강 미술관(063-653-2296)으로 문의하면 되며,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